위쪽부터 토네타블 탈보 와인, 버버리 남방, 아르마니 시계, 에트로 지갑.

품질은 명품 가격은 저렴
'세컨드 브랜드'가 뜬다

실속파 고객들 2등상품 선호… 백화점 매출 효자

유통업계에 세컨드(Second) 브랜드가 뜨고 있다.

세컨드 브랜드는 명품(Prestige)과 대중(Mass)을 뜻하는 말이 결합된 일명 '매스티지(Masstige)'로 대중적인 명품을 말한다.

세컨드 브랜드가 뜨는 이유는 명품을 사기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명품의 이미지를 갖췄으면서도 가격은 절반가량 저렴한 세컨드 브랜드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지역 백화점들에 따르면 패션과 와인을 중심으로 세컨드 브랜드의 매출이 급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패션분야의 대표적인 세컨드 브랜드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아르마니 꼴레지오니', 도나카렌뉴욕의 'DKNY', 돌체앤가바나의 'D&G', 캘빈클라인의 'CK' 등이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4층에 입점한 아르마니 꼴레지오니의 남성복 정장 한벌 가격이 170~200만원 수준이지만 꾸준한 매출로 인해 인기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와인분야에서도 명품 와인과 같은 포도밭에서 생산된 동일 품종의 포도로 만든 세컨드 와인이 저렴한 가격에 명품 와인의 품격을 즐기려는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모으고 있다.

와인의 여왕으로 불리는 샤또 마고 대신 '파비용 루주 듀 샤또 마고'를 찾고 샤또 무통 로쉴드의 '프티 무통 로쉴드'와 샤또 라피트 로쉴드의 '카뤼아드 드 라피드'를 통해 명품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기는 것이다.

세컨드 와인 열풍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지하1층 와인코너에서 와인 벼룩시장전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세컨드와인 모음전을 갖고 있다.

세컨드와인 모음전에는 샤또 그리오 라로즈의 세컨드 와인인 '샤또 라로지드 그리오'가 4만8천원에, 샤또 오브리옹의 '르 비안 뒤 샤또 오브리옹'이 7만7천원, 샤또 탈보의 '토네타블 탈보'가 4만5천원에 선보이는 등 정상가의 2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만 목표액의 700%인 700만원어치의 와인이 팔려 나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명품 가운데 세컨드 브랜드로 버버리, 에트로, 센존, 오일릴리, 막스마라를 분류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의 6~8월 매출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버버리(-2.5%)와 센존(-0.5%)만 소폭 감소한 반면 에트로(45.5%), 막스마라(7.5%), 오일릴리(1.2%)는 신장하는 등 타 브랜드의 매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다.

또 DKNY와 CK, 엠포리오 아르마니 등 명품 세컨드 브랜드의 시계만 모아 판매하고 있는 1층 우림시계매장도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실속파 명품족들이 세컨드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백화점 매출기여도도 좋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희귀 화폐 구경오세요

희귀화폐 전시회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주시청 1층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전시된 희귀화폐를 살펴보고 있다. 전시작은 화폐수집가 박용권씨가 30여년 동안 수집한 300여점으로 중국 송나라의 정화통보를 비롯, 고려시대부터 구한말까지의 희귀화폐를 망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오늘 결정

척추뼈 검출로 이달초 검역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 재개 여부가 23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조한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23일께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미국 쇠고기 수입 정상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한스 장관은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본격 검토하기에 앞서 "쇠고기 교역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당국은 지난 16일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척추 뼈 수출 관련 해명 및 재발방지대책 답변서를 검토한 뒤, 가능하면 이번주 내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비리신고 하도급업체 보복땐 과징금

다음달부터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대기업이 하도급대금 삭감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해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악성 위법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하루 구매
8,000억 돌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용역 구매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일평균 8천억원대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07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912만건, 1조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9.4%, 7.4% 증가했다.

반기기준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2002년 하반기에 사상최고치(1조7천억원)를 기록한 뒤 '카드대란'이 일면서 2003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04년부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용카드 이용실적 가운데 물품 및 용역 구매실적은 870만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3%나 증가했고, 금액도 사상 최고액인 8천427억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금호종금 새 대표 김종대 사장 선임

금호종합금융은 22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종대(51)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이사는 서울 출신으로 보성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과 미국 루스벨트 대학 MBA 과정을 수료했다.

동양증권 이사와 동양종합금융 상무, 한누리투자증권 영업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승용차 100대 중 2대는 수입차

전체 1천193만3,829대 등록

국내 등록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달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22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7월 현재 말 현재 등록된 승용차는 총 1천193만3천829대였으며 수입 승용차는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의 2.0%에 해당하는 23만8천729대에 달했다.

즉 현재 국내에 등록된 승용차 100대 가운데 2대는 수입차인 셈이다.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전체 등록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의 비율은 1.97%로 2%를 밑돌았으며, 지난해 말에는 1.8%에 머물렀었다. 이는 국산차 보다 수입차의 판매가 더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60만1천503대)는 지난해 상반기(55만8천167대)에 비해 7.8%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수입차의 신규등록은 2만193대에서 2만5천495대로 26.3% 증가했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현대차는 지난 7월 말 현재 승용차 583만9천854대, 승합차 50만7천118대, 화물차 165만4천595대 등 801만7천446대로, 사상 처음으로 800만대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나주 등 혁신도시 채권보상
조성 토지 우선 공급

혁신도시 예정지구내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현지인에게는 조성토지의 일부가 우선 공급된다.

또 1천㎡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는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금 보상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현지인(부재지주 제외)으로서 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상업용지 등 조성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은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을 3년 만기 채권으로 받을 경우 이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예치 기간도 채권 만기와 같은 3년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예정지구에서 1천㎡ 이상의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는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를 조성원가의 110% 선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키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 운암동에 '코아루' 202세대 분양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국병원 인근에 '코아루 렉시안' 아파트 202세대를 분양한다.

공급물량은 115.99㎡(35평), 119.55㎡(36평) 등 두 가지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설계 ▲홈네트워크시스템 도입 ▲가전·가구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단지 내에는 테마공원을 비롯, 선큰가든, 입주민 전용 휘트니스센터 등이 조성된다.견본주택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현대병원 인근에 있으며, 오는 30일께 오픈한다. 문의 062-573-808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